

한국건강심리학 연구의 동향과 지향점[†]

이 경 주	이 채 빈	남 기 연	현 명호 [#]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석사과정	석사수료	석사과정	교수

본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실린 논문과 최근 APA에서 발간한 *Health Psychology*에 실린 논문을 바탕으로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국내외 연구를 비교한 결과, 국내에서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고, 국외에서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의 주제를 보면, 국내외 모두 질병과 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관계 탐색을 다룬 논문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와 개입 관련 논문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국내에서는 진단/검사/평가 연구, 개관 및 리뷰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외에서는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논문과 개관 및 리뷰 논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건강심리학회에서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모두 다루는 연구와 건강심리학자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심리학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않는 재현성 위기와 생성형 AI의 사용과 같은 건강심리학 연구자와 학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건강심리학,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Health Psychology*, 연구 동향, 재현성 위기, 생성형 AI

[†] 이 논문은 한국건강심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제 67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3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현명호,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한국건강심리학회는 1994년 한국심리학회의 제8분과로 창립되어 2024년 3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건강심리학회는 학회 창립 2년 후인 1996년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을 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발간하기 시작하여 국내 건강심리학 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시점에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의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외의 건강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과 Health Psychology에 실린 논문을 분류해 건강심리학 연구의 흐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리학 연구의 재현성 위기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용과 관련된 최근 논의와 국제 학술지의 편집방향 등을 살펴 건강심리학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건강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 논문은 본 논문이 처음이 아니다. 서경현(2017)은 변인 간의 관계를 분류하여 그간의 연구 동향과 미래 건강심리학자가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였다. 강혜자와 손정락(2018)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서 주로 다룬 주제를 확인하고 건강심리학 부흥을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연간 발간 횟수의 변경,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2020년 이후의 연구를 네트워크 분석을 하여 주제의 흐

름을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다(한규만, 최지명, 이민규, 2022).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간의 연구 여정을 확인하고 지향점을 찾고자 국내외 건강심리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유형을 분류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에 모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질병의 진단과 개입, 원인 파악 등의 연구 주제의 비중과 변화를 검토하였다. 분류작업은 논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시행했으며, 필요에 따라 초록을 함께 탐색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인증받은 학술지다. 현재 연 6회 발간되고 있고 2020년 4회에서 6회로 발간기를 변경한 이후로 연평균 약 55편의 논문이 발행되고 있다. 창간 이후 발행 호 수는 표 1과 같으며 연간 발행 논문 편 수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연간 발간 호 수를 늘렸음에도 발행된 논문의 편 수에는 큰 증가가 없어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와 연구자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1996년 발간된 창간호부터 본 논문이 작성된 시기까지인 2024년 29권 2호까지의 논문 1,222편을 분석하였다. 시기적인 분류는 기준의 서경현(2017)이 분석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825편, 그 이후의 논문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7편, 연

표 1.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의 연간 발행호수

연도	1996~1998	1999~2001	2002~2003	2004~2019	2020~현재
호수	1	2	3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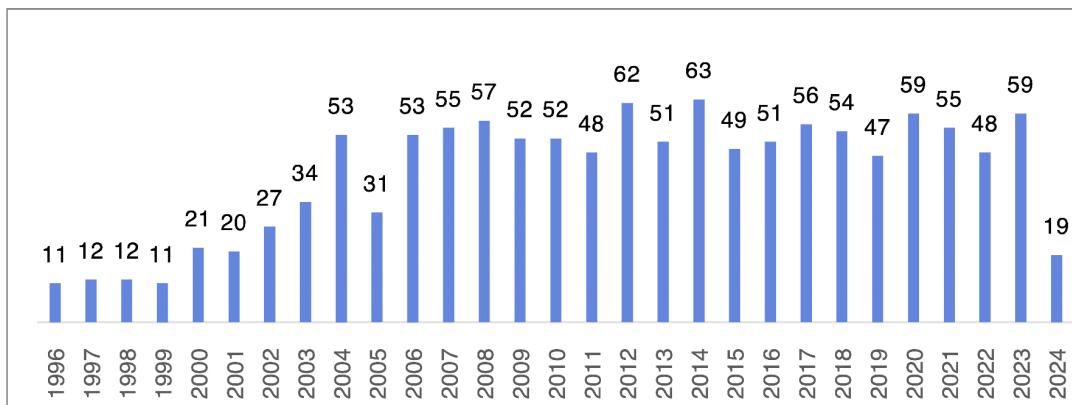


그림 1.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연간 발행 편 수

간 발행 호수가 6호로 늘어난 2020년부터 2024년 까지의 240편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논문 주제 분석: 신체와 정신건강

한국건강심리학회의 홈페이지에는 학회의 설립 목적을 ‘신체 및 정신건강의 생물/심리/사회적 측면에 관심있는 연구자와 전문가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한국건강심리학회, 2024). 기존의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및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졌던 건강심리학은 심리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을 모두 포괄한다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에(강혜자, 손정락, 2018) 독립적인 제8분과로 설립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를 정신건강에 한정한 논문인지, 신체와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논문인지, 그 외의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인지 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음챙김 명상이 유방암 환자의 스트레스, 수용, 삶의 질 및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김상대, 김정호, 김미리혜, 2024)”과 같이 신체 질환과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를 다룬 논문은 신체 및 정신건강 논문

으로 분류했다. 실제 신체 질환을 주제로 하지 않거나 신체생리적 지표를 측정하지 않거나 건강행동이론을 다루지 않고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논문으로 분류했다. 이외에 임상적인 수준의 건강을 다루지 않아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논문으로 분류했다. 분류 결과는 그림 2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창간호부터 21권까지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모두 다룬 논문이 24.2%였고, 정신건강만을 다룬 녺문은 절반이 넘는 65.0%로 나타났다. 그 외의 주제를 다룬 논문은 10.8%이었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22권, 23권, 24권에서는 정신건강만을 다룬 논문이 84.7%로 가장 많았다. 신체와 정신건강을 함께 다룬 논문은 9.6%, 기타 논문은 5.7%로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신 논문에 해당하는 25권부터 29권 2호까지는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논문이 77.5%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눈에 띠는 점은 이렇게 감소한 논문의 비중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모두 다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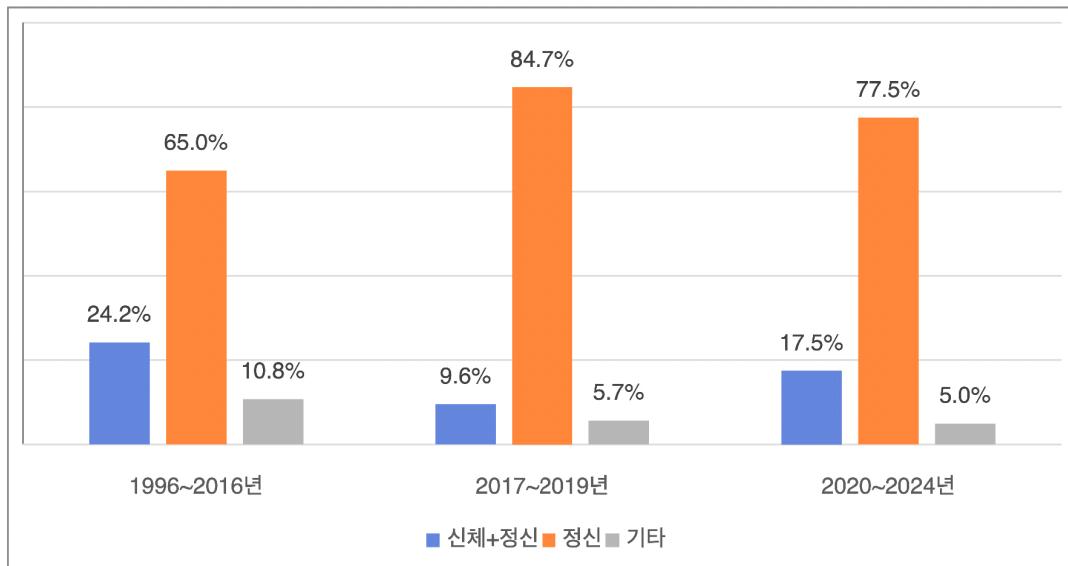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논문 주제

연구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외의 기타 논문은 5.0%로 소폭 감소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2024)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인 만큼 앞으로도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같이 다루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논문 연구 유형 정리: 6가지 분류

연구 유형은 관계 탐색 연구(질병 및 환자 이해), 치료 및 개입 연구, 진단/검사/평가 연구, 개관 및 리뷰연구, 질적 분석연구,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나누어 총 6가지로 분류했다. 이 분류 기준은 서경현(2017)의 분류 기준인 개관연구, 효과검증 연구, 척도 개발 연구, 질적 연구, 메타 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다. 새로운 분류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국내의 건강심리학 연

구와 국외 연구와의 차별점과 국내 연구의 보완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관계 탐색 연구에서는 질병의 원인, 보호요인, 위험요인, 변인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등을 확인하는 논문을 포함했다. 치료 및 개입은 실제로 개입 효과를 다룬 연구, 치료법을 소개하는 논문이 해당된다. 진단/검사/평가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척도의 활용에 대한 논문을 포함한다. 개관 논문은 개념에 대한 소개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포함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분석한 논문 등을 포함했다.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정책적 접근, 유병률 조사,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건강심리학자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논문이 해당한다.

만약 논문이 두 가지 이상의 분류에 해당하면 두 분류 유목 모두에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김혜리, 현명호, 하늘(2020)의 “외상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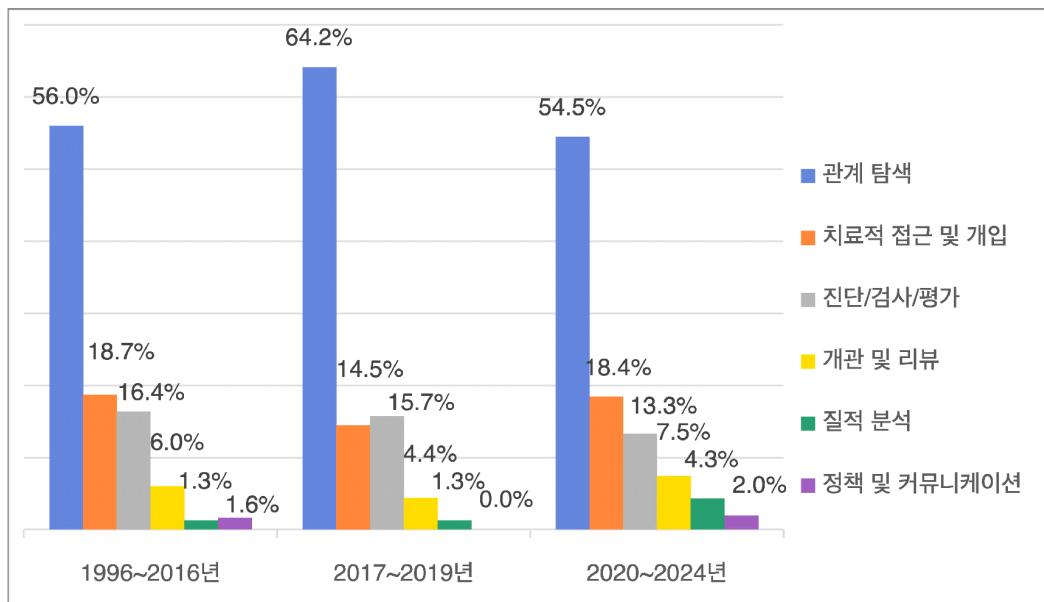


그림 3. 『한국심리학회: 건강』 연구 유형

성장을 위한 치료적 개입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과 같은 논문은 치료적 개입을 다른 리뷰 논문이기에 치료 및 개입 연구와 개관 및 리뷰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두 가지 분류를 한 경우는 전체 논문 1,222편 중 54편이어서 해당 분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체 편수는 1,276편으로 계산되었다(그림 3 참고).

『한국심리학회: 건강』 이 게재한 논문은 관계 탐색 연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중 2017년부터 2019년에는 64.2%로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치료 및 개입 연구는 2016년까지 18.7%,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8.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7부터 2019년에는 14.5%로 다른 시기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어서 진단/검사/평가 연구가 각 시기 별로 16.4%, 15.7%, 13.3%로 나타나 시간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관 및 리뷰 논문은 6.0%, 4.4%, 7.5%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증가는 메타분석과 같은 리뷰 논문의 증가 때문으로 추정한다. 질적 연구는 1.3%에서 최근 들어 4.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2016년까지는 1.6%,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2.0%로 나타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무했다.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비중의 90%를 넘었던 관계 탐색, 치료 및 개입, 진단/검사/평가 연구는 최근 들어 도합 86.2%로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의 개관 및 리뷰, 질적 분석,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소폭 증가해 2020년 이후 연구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논문은 2.0%로 적은 편이어서 건강 심리학 연구자의 많은 관심과 투고가 필요하다.

Health Psychology

Health Psychology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제 38분과인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매월 발간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매년 평균 약 9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그림 4 참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논문과 비교를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 5월호까지의 최신논문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은 총 430편의 논문이었고, 분석 기준은 국내 논문과 동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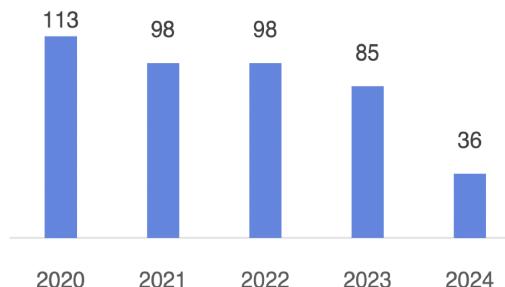


그림 4. Health Psychology 연간 발행 편 수

논문 주제 분석: 신체와 정신건강

국내 논문과는 다르게 Health Psychology에서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모두 다른 논문이 96.7%에 이르렀다. 또한 정신건강만을 다른 논문 보다도 통계 기법을 소개하는 논문과 같은 기타 논문이 더 많았다(그림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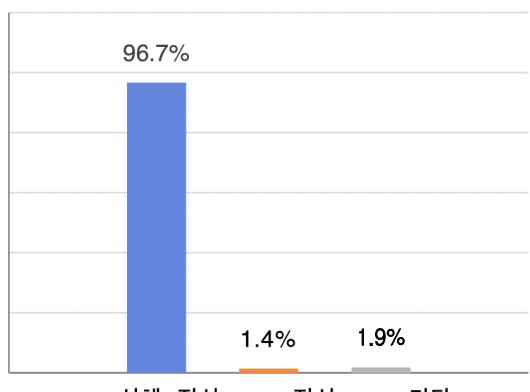


그림 5. Health Psychology 논문 주제

논문 연구 유형 정리: 6가지 분류

Health Psychology의 논문을 국내 논문과 동일하게 6가지로 분류했다. 중복 분류 논문은 92편이어서 총 논문 수는 522편으로 계산되었다. 그 결과 국내 논문과 마찬가지로 관계 탐색 연구가 52.3%로 과반수를 넘었다. 치료 및 개입 연구도 18.4%로 같은 시기의 국내 현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목할 점은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14.2%로 세 번째로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개관 및 리뷰 연구 역시 10.2%로 국내 현황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평가 연구는 4.0%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연구도 1.0%로 같은 시기 국내에서 4.3%로 나타난 것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그림 6 참고).

여기서 사용한 논문의 분류 기준이 적절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가 어느 분류 기준에 적합한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간의 논의를 통해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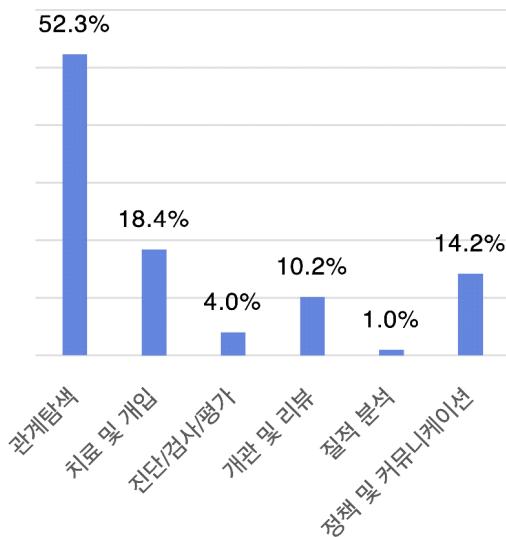


그림 6. Health Psychology 연구 유형

건강심리학의 연구현황과 지향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심리학의 연구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재현성 위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건강심리학 연구

해외의 경우 건강심리학이라는 정의에 걸맞게 고혈압, 에이즈, 만성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과 함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96%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국내의 건강심리학이 심리적 측면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심리학 분야와 차별화되는 건강심리학의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행동이론을 반영한 연구, 신체적 지표를 활용한 연

구,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 등 신체와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유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질적 분석은 2020년 이전을 모두 합쳐 13편이었는데 2020년 이후 11편으로 분석되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에 4편이었던 메타분석 연구도 최근 4년간 5편이 출판되어 눈에 띠는 증가를 보였다. 이는 건강심리학자가 임상에서 개인 맞춤형 개입을 제공하고, 근거기반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질적 분석연구와 메타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서경현, 2017)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해외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야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전체 논문 430편 중 92편으로 21.4%에 해당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논문 1,222편 중 54편의 논문, 즉 4.4%만이 두 가지로 분류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해외 건강심리학자가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한국에서도 건강심리학 연구의 다양성을 위해서 건강관련 주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장혜자와 손정락(2018)은 한국건강심리학회의 내일을 예측하면서 “자문 영역 확대(집단, 조직, 정부), …, 노인층, 빈곤층, 다문화 민족, 이주민 및 실업자 등의 새로운 집단과 문제에 관한 실무 강조 증가, 전쟁, 테러 및 전염병(예, 메르스)과 관련된 세계적 건강문제 초점 증가”를 변화이자 기회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9년 말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COVID-19가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고, 건강심리학의 관심사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를 반영해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공중 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 건강행동을 증진시키고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건강심리학이 크게 기여했음을 발견된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Health Psychology의 42권 8호에서는 ‘백신 접종의 주제와 거부’를 주제로 특별호를 지정해 전염병과 관련하여 건강심리학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역할을 환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서 COVID-19를 다룬 논문은 총 18편으로 대부분 “대면 및 비대면 접촉 빈도가 20대의 코로나 우울에 이르는 경로 탐색: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신예솔, 박수현, 2022)”와 같이 COVID-19로 인해 악화된 정신건강과 질환을 탐색한 연구나 “코로나 시대의 건강 심리 서비스: 원격 심리치료의 효과와 이슈(최설, 김미리혜, 2021)”와 같이 비대면 치료의 효과와 겸증을 다룬 논문이었다. 이에 비해 Health Psychology에서는 “미국 표본에서의 인구통계학, 성격, 사회 인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 준수의 상관관계; Demographic, personality, and social cognition correlates of coronavirus guideline adherence in a U.S. sample.(Bogg & Milad, 2020)”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다룬 연구와 “흑인과 백인 미국인의 건강관리 경험, 의료 신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및 실행; Current health care experiences, medical trust, and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and uptake in Black and White Americans.(Martin, Stanton, & Johnson, 2022)”과 같이 의료 전달, 병원 환경 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인종, 민족, 성소수자 등 문화적 다양

성을 더욱 강조하는 해외의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저등급 염증의 관계를 조절하는 또래 지지; Peer support as moderator of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low-grade inflammation in adolescents.(Jiang et al., 2024)”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건강심리학을 연계한 연구가 많았다. 한국도 향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로 변화될 것이 분명하기에 건강심리학자도 이에 발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현성 위기와 건강심리학

최근 심리학계는 발견된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Lilienfeld, 2012)는 재현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건강심리학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현성(Reproducibility)은 “과학적 연구를 반복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는 정도”를 뜻한다(Open Science Collaboration, 2012). 네덜란드 심리학 교수의 연구 부정사건(Stroebe, Postmes, & Spears, 2012)과 사회과학의 기초 이론을 제공하여 온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재현되는 비율이 낮다는 회의론이 등장하면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위상과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커져가고 있다(김빛나, 최준원, 고현석, 2017).

심리학에서 재현성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인은 영가설 검증에 의존하는 통계적 추론 절차에 있다(박준석, 2015; Cohen, 1994; Cumming, 2014; Nuzzo, 2014; Krueger, 2001; Wasserstein & Lazar, 2016). 많은 연구는 *p*값을 활용해 영가설을 기각하는 방식을 자료분

석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분법적으로 영가설을 기각하는 연구방식은 p 값을 임계값 이하로 낮추기 위해 무모하게 이상치를 제외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혹은 분석방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Simmons, Nelson, & Simonsohn, 2011). 두 번째 원인으로 1종 오류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키는 기준의 연구 관행을 들 수 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설정한 연구설계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과의 유의성을 기준으로 자료의 추가 수집 여부를 결정하고, 본래 찾고자 하던 결과가 나타나면 계획했던 자료 수집을 중단하며, 유의했던 결과만을 논문에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John, Loewenstein, & Prelec, 2012). 세 번째 원인은 가설에 부합하는 유의한 연구와 새롭고 참신한 연구만을 받아들이는 학술지의 출판 편향에 있다 (Francis, 2012; Giner-Sorolla, 2012; Neuliep & Crandall, 1990, 1993; Nosek & Lakens, 2014; Open Science Collaboration, 2012, 2015; Yong, 2012). 이외에도 연구설계의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게재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인간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로 개인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더라도 연구참여자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고 심리학 연구결과를 의심의 눈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않게 되면 그 학문분야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대개 연구자가 연구를 기획할 때에는 선행연구를 찬찬히 리뷰하

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연구라면 연구자는 연구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현되지 않는 연구를 다시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거나 그 연구의 진실성을 재검토하게 되면서 연구의 발전이 더뎌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리학과 같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인간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찾는 연구분야에서 연구의 재현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예컨대, 공익광고가 금연을 돋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현성을 의심한다면 흡연자에게 공익광고를 활발히 제공하려는 정책당국의 노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현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현재 한국건강심리학회는 재현성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회의 연구윤리 심사 운영세칙을 확인해보면 기본적인 연구부정 행위와 연구윤리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현성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한국건강심리학회, 2018). 그 이외에는 발간규정을 통해 Brief Report의 경우 “의미 있는 반복검증 연구”를 투고 가능한 논문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건강심리학회, 2023). 이는 반복검증을 통한 재현성 향상을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재현성의 확보는 학회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심리학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대상자의 표본을 적절한 범위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심리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때 IRB는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적정 인원을 산출하여 보고하도록 하는데, 연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정 연구대상자 수를 비교적 적게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표본의 수가 IRB에서 권장하는 수보다 많을수록 좋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닌 이상 연구 자료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사용된 통계적 계산 방식, 연구 방법, 운영체계를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보고해 연구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측정 방식과 통계 방식 등에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복 검증은 중요하고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서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접근하여야 한다.

학회 차원에서는 우선 재현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게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심리학 연구의 금과옥조와 같았던 영가설 검증과 P 값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뢰구간과 효과 크기를 추가적으로 보고할 것을 장려하거나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Hyde, 2001). 두 번째는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사전등록제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학술지에 연구계획을 공개적으로 등록해 사전에 검증을 받고 만약 동료 평가를 통해 연구 계획이 방법론적으로 견전하고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승인되면 이후 연구결과의 유의성과 관계없이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다(박준석, 2016; 김빛나 외, 2017에서 재인용; Lindsay, 2015; Wagenmakers, Wetzel, Borsboom, van der Maas, & Kievit, 2012). 세 번째는 오픈 사이언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분석코드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여러 학술지에서 논문을 투고할 때 자료와 통계 분석방법을 공개할 것인지 를 질문함으로써 연구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반복 검증 연구와 메타분석 연구를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립을 통해 재현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김빛나 외, 2017), 통계적인 측면 이외에도 학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생성형 AI와 건강심리학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기존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AI의 한 분야로(Epstein, Hertzmann, & Investigators of Human Creativity, 2023) Chat GPT로 대표된다. 생성형 AI의 발전과정을 Mucci와 Stryker(2023)는 삼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단계는 체스나 언어 번역과 같이 특정 분야에 국한했을 때 사람과 같은 수준의 수행을 할 수 있는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단계다. 다음 단계는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단계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지능을 초월한 사고 능력을 가지

는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인데, 현재 그 단계의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미래학자도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AI 기술의 발전은 건강심리학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수도 있고 연구자가 다학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그렇듯 이런 이점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한국연구재단(2023)에서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성형 AI와 연구 윤리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AI 활용이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거나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연구자는 53.5%에 달했다. 조사 당시인 2022년까지 AI를 활용해본 연구자는 10.9%였지만 생성형 AI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AI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 인간의 고정관념이 투영되어 데이터가 편향적으로 제공되는 것, AI기술의 오작동, 데이터 유출로 인한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AI는 사용하거나 말거나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성형 AI 활용의 이점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윤리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2023년 초부터 다양한 국제학술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김해도, 양정모, 정혜진, 2024).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AI 도구는 저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AI 도구 활용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는 것과 AI를 활용할 때 관련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COPE Council, 2023;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2024; Zielinski et al., 2023).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는 생성형 AI의 피상성과 거짓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과학자에게 아래의 7가지 권장 사항을 제안했다 (Buriak et al., 2023). 1) 원고를 준비하는 데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어느 부분에 AI 결과 값을 사용했는지, 어떤 질문을 통해 얻었는지를 기재하라. 2) 생성형 AI 출력값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담고 있는 초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꼼꼼하고 비판적으로 반복하여 검토하라. 3) 의도하지 않은 표절을 피하기 위해 생성형 AI의 출력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라. 4) 생성형 AI를 통해 제시된 인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본 문헌을 통해 확인하라. 5) 생성형 AI는 원고 작성률을 높이는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동 저자에 포함하지 말아라. 6) 생성형 AI는 어떠한 윤리적인 책임도 질 수 없고 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7)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가 창의력과 숙고 능력을 방해하지 않고 시야를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화선이 되도록 사용하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에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핵심적인 키워드와 그에 맞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했다. 2024년 5월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두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연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각종 평가 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연구자는 연구

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다(한국연구재단, 2024). 앞서 언급한 한국연구재단 조사에서 생성형 AI를 논문 작성에 활용한 경우 AI가 작성한 내용이 편향적인지를 확인할 것, 선행연구를 통해 AI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 논문 심사자 및 평가자와 연구자가 AI를 활용할 경우 이를 명시할 것, 사용한 AI 도구의 구체적인 정보와 명령문을 공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응답한 연구자의 비율이 약 60~80%였다(한국연구재단, 2023).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연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그간의 한국건강심리학회의 발자취를 따라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제언을 담았다. 학문이 나아가는 방향에 정답은 없지만 더 나은 방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방법이나 도구의 발전이 아직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또한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도구나 방법이 개발될 것이다.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심리학자로서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되며, 그 과정에서 창의성과 통찰력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의 건강심리학자가 과학자로서 명예를 잊지 않고 발전적이고 윤리적 연구를 하고 학회에서는 이를 장려하고 격려하는 과정에 본 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혜자, 손정락 (2018). 한국의 건강심리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과기정통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마련. <https://www.mstis.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79742>
- 김빛나, 최준원, 고현석 (2017). 심리학 연구에서 재현성 위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안 모색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3), 359-396.
- 김상대, 김정호, 김미리혜 (2024). 마음챙김 명상이 유방암 환자의 스트레스, 수용, 삶의 질 및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9(1), 157-178.
- 김해도, 양정모, 정혜진 (2024). 연구개발 활동에서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책임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42(1), 109-141.
- 김혜리, 현명호, 하늘 (2020).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치료적 개입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2), 417-441.
- 박준석 (2015). 영가설 유의성검증 절차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베이지언 통계학: 심리학의 경우. *과학철학*, 18(2), 135-147.
- 박준석 (2016). ‘연구사전등록제’, 재현성위기의 제도적 해법. 사이언스온. <http://scienceon.hani.co.kr/media/414001>
- 서경현 (2017). 국내외 건강심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1-13.
- 신예솔, 박수현 (2022). 대면 및 비대면 접촉 빈도가 20대의 코로나 우울에 이르는 경로 탐색: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4), 589-607.
- 최설, 김미리혜 (2021). 코로나 시대의 건강심리 서비스: 원격 심리치료의 효과와 이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1), 1-20.
- 한국건강심리학회 (2018). 학회지 윤리심사 운영세칙.

- 한국건강심리학회. <https://www.healthpsy.or.kr:6028/?c=letterzine&m=ethics>
- 한국건강심리학회 (2023). 학회지 발간규정. 한국건강심리학회. <https://www.healthpsy.or.kr:6028/?c=letterzine&m=information>
- 한국건강심리학회 (2024.06.07. 접속일). 건강심리학회란. 한국건강심리학회. <https://www.healthpsy.or.kr:6028/?c=introduce&m=health>
- 한국연구재단 (2023). 2023년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한국연구재단. https://cre.nrf.re.kr/bbs/BoardDetail.do?nttId=8770&bbsId=BBSMSTR_000000158&pageIndex=1
- 한국연구재단 (2024).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 https://cre.nrf.re.kr/bbs/BoardDetail.do?nttId=8787&bbsId=BBSMSTR_0000000098&pageIndex=1
- 한규만, 최지명, 이민규 (2022). 한국 건강심리학 연구주제의 흐름: 2002–2021.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6), 1025–1036.
- Bogg, T., & Milad, E. (2020). Demographic, personality, and social cognition correlates of coronavirus guideline adherence in a US sample. *Health Psychology*, 39(12), 1026–1036.
- Buriak, J. M., Akinwande, D., Artzi, N., Brinker, C. J., Burrows, C., Chan, W. C., ... Ye, J. (2023). Best practices for using AI when writing scientific manuscripts: Caution, care, and consideration: Creative science depends on it. *ACS Nano*, 17(5), 4091–4093.
- Cohen, J. (1994). The earth is round ($p < .05$). *American Psychologist*, 49(12), 997–1003.
- COPE Council. (2023). Authorship and AI tools – COPE position statement. COPE. <https://publicationethics.org/cope-position-statements/ai-author>
- Cumming, G. (2014). The new statistics: Why and how. *Psychological Science*, 25(1), 7–29.
- Epstein, Z., Hertzmann, A., & Investigators of Human Creativity. (2023). Art and the science of generative AI. *Science*, 380(6650), 1110–1111.
- Francis, G. (2012). Publication bias and the failure of replication in experimental psychology.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9(6), 975–991.
- Giner-Sorolla, R. (2012). Science or art? How aesthetic standards grease the way through the publication bottleneck but undermine sc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6), 562–571.
- Hyde, J. S. (2001). Reporting effect sizes: The roles of publication editors, textbook authors, and manual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1(2), 225–228.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2024).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ICMJE. <https://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 Jiang, T., Chen, E., Lam, P. H., Kim, J., Moon, H., & Miller, G. E. (2024). Peer support as moderator of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low-grade inflammation in adolescents. *Health Psychology*, 43(3), 171–183.
- John, L. K., Loewenstein, G., & Prelec, D. (2012). Measuring the prevalence of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s with incentives for truth telling. *Psychological Science*, 23(5), 524–532.
- Krueger, J. (2001). 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ing: On the survival of a flawed method. *American Psychologist*, 56(1), 16–26.
- Lilienfeld, S. O. (2012). Public skepticism of psychology: Why many people perceive the study of human behavior as unscientific. *American Psychologist*, 67(2), 111–129.
- Lindsay, D. S. (2015). Replica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26(12), 1827–1832.
- Martin, K. J., Stanton, A. L., & Johnson, K. L.

- (2023). Current health care experiences, medical trust, and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and uptake in Black and White Americans. *Health Psychology*, 42(8), 541–550.
- Mucci, T., & Stryker, C. (2023.12.18.). 초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IBM. <https://www.ibm.com/kr-ko/topics/artificial-superintelligence>
- Neuliep, J. W., & Crandall, R. (1990). Editorial bias against replication research.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4), 85–90.
- Neuliep, J. W., & Crandall, R. (1993). Reviewer bias against replication research.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6), 21–29.
- Nosek, B. A., & Lakens, D. (2014). Registered reports: A metho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published results. *Social Psychology*, 45(3), 137–141.
- Nuzzo, R. (2014). Statistical errors: P values, the 'gold standard' of statistical validity, are not as reliable as many scientists assume. *Nature*, 506(7487), 150–152.
- Open Science Collaboration. (2012). An open, large-scale, collaborative effort to estimate the reproducibility of psychological sc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6), 657–660.
- Open Science Collaboration. (2015). Estimating the reproducibility of psychological science. *Science*, 349(6251), 943–951.
- Simmons, J. P., Nelson, L. D., & Simonsohn, U. (2011). False-positive psychology: Undisclosed flexibility i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llows presenting anything as significant. *Psychological Science*, 22(11), 1359–1366.
- Stroebe, W., Postmes, T., & Spears, R. (2012). Scientific misconduct and the myth of self-correction in sc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6), 670–688.
- Wagenmakers, E. J., Wetzels, R., Borsboom, D., van der Maas, H. L., & Kievit, R. A. (2012). An agenda for purely confirmatory research.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6), 632–638.
- Wasserstein, R. L., & Lazar, N. A. (2016). The ASA's statement on p-values: Context, process, and purpose. *The American Statistician*, 70(2), 129–133.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4.06.07. 접속 일). Constitution. WHO. <https://www.who.int/about/governance/constitution>
- Yong, E. (2012). Replication studies: Bad copy. *Nature*, 483(7398), 298–300.
- Zielinski, C., Winkler, M., Aggarwal, R., Ferris, L., Heinemann, M., Lapeña Jr, J. F., ... & Habibzadeh, F. (2023). Generative AI, and Scholarly Manuscripts: WAME Recommendations on Chatbots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lation to Scholarly Publications. *Open Access Macedoni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11(A), 263–265.

원고접수일: 2024년 10월 16일

제재결정일: 2024년 10월 2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4. Vol. 29, No. 6, 1255 - 1269

Trends and Directions in Research of the Korean Health Psychology

Kyung-Ju Lee Chaebin Lee Kiyeon Nam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health psychology based on an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and Health Psychology by the APA. By comp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rough their titles and abstracts, it was discovered that domestic research tends to focus more on mental health, whereas international studies adopt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erms of research topic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ost frequent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and disease, followed by investigations into treatment and interven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Korean Health Psychology Association should prioritize research that encompasses bo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as well as studies that offer policy recommendations and enhance the role of health psychologists. Furthermore, the study recommended that health psychology researchers and societies pay attention to emerging issues such as the reproducibility cri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 implications of generative AI.

Keywords: *Health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Research Trends, Reproducibility Crisis, generative AI*